

# 내 나라 내 땅 달리며 '3·1 운동 100년' 의미를 되새기다

태극기 물결 속 2천여명 완주  
'男 폴코스' 김정모씨 5전6기  
女 이정숙씨 통산 9번째 우승  
男 하프 이재식씨 진땀송  
女 하프 오순미씨 우승

광주일보가 주최한 제54회 3·1절기념전국마라톤대회(이하 3·1 마라톤)가 지난 1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3·1절 정신을 기리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민주광장에 마련된 출발선에 선 2000명의 참가자들은 광주 도심을 가로지른 뒤 영산강변을 달려 상무시민공원으로 끝인했다.

대회 기간 내내 낮 최고 기온이 14도에 이르는 등 봄기운이 이어졌지만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매우나뭇을 기록했고 영산강변에 짙은 안개가 끼는 등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대회 참가자들이 코스 주행에 다소 어려움을 느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참가자들은 최

### ■ 3·1마라톤 순위표

#### ◆ 남자하프

순위	배번호	이름	기록
1	1357	이재식	01:12:16.14
2	1268	마성민	01:12:44.75
3	1109	이인식	01:18:11.77

#### ◆ 여자하프

순위	배번호	이름	기록
1	8067	오순미	01:26:25.49
2	8077	정순자	01:27:32.51
3	8071	이은혜	01:30:07.35

#### ◆ 남자풀

순위	배번호	이름	기록
1	155	김정모	02:41:56.31
2	143	구병주	02:43:29.03
3	218	최성락	02:49:32.42

#### ◆ 여자풀

순위	배번호	이름	기록
1	814	이정숙	03:00:01.74
2	803	김향희	03:03:26.71
3	809	박은숙	03:22:07.23



상의 기량을 뽐내며 완주를 해내는 등 '마라톤 마니아'의 진면목을 발휘했다.

3·1 마라톤 폴코스 우승자는 김정모(50·광주)씨가 차지했다.

3·1 마라톤에는 6회째 참가하고 있지만 입상권에 들지 못했다는 김씨는 이날 2시간 41분 56초의 기록으로 2위인 구병주(2시간 43분 29초)씨를 2분여 앞서며 가장 먼저 결승선을 넘어섰다.

여자 폴코스는 3시간 1초를 기록한 이정숙(54·천안)씨가 결승 테이프를 끊었다.

지난 2010년부터 6년 연속으로 폴코스에서 우승하던 이씨는 3·1 마라톤의 단골 우승자다.

2016년 대회에는 6초차로 아쉽게 2위에 머물렀지만 2017년에 재탈환에 성공, 지난 2018년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 9번째 우승을 거머쥐며 3·1 마라톤 폴코스 최강자의 자리에 올라섰다.

남자 하프코스는 1시간 12분 16초로 결승점에 들어온 이재식(37·임실)씨가 우승했다. 지난해 하프 코스 우승자인 마성민(1시간 12분 44초)씨와 레이스 막판까지 선두 다툼을 벌이며 얻은 귀중한 우승이다. 여자 하프는 오순미(47·서울)씨가 1시간 26분 25초로 우승을 차지했다.

3·1 마라톤은 특별한 안전사고 없이 순조롭게 치러졌다.

광주의 구 도심을 관통해 영산강변으로 이어지는 주로가 잘 통제되어 대회 참가자 대부분 달리는데 무리없는 흡족한 대회로 평가했다.

매년 3·1 마라톤에서 간식봉사를 하는 향림사 불자들이 동신대학교 생활체육학과 학생들의 스포츠데이핑과 물리치료 등도 참가자들의 지친 몸을 회복시켜 주는데 큰 도움을 줬다는 평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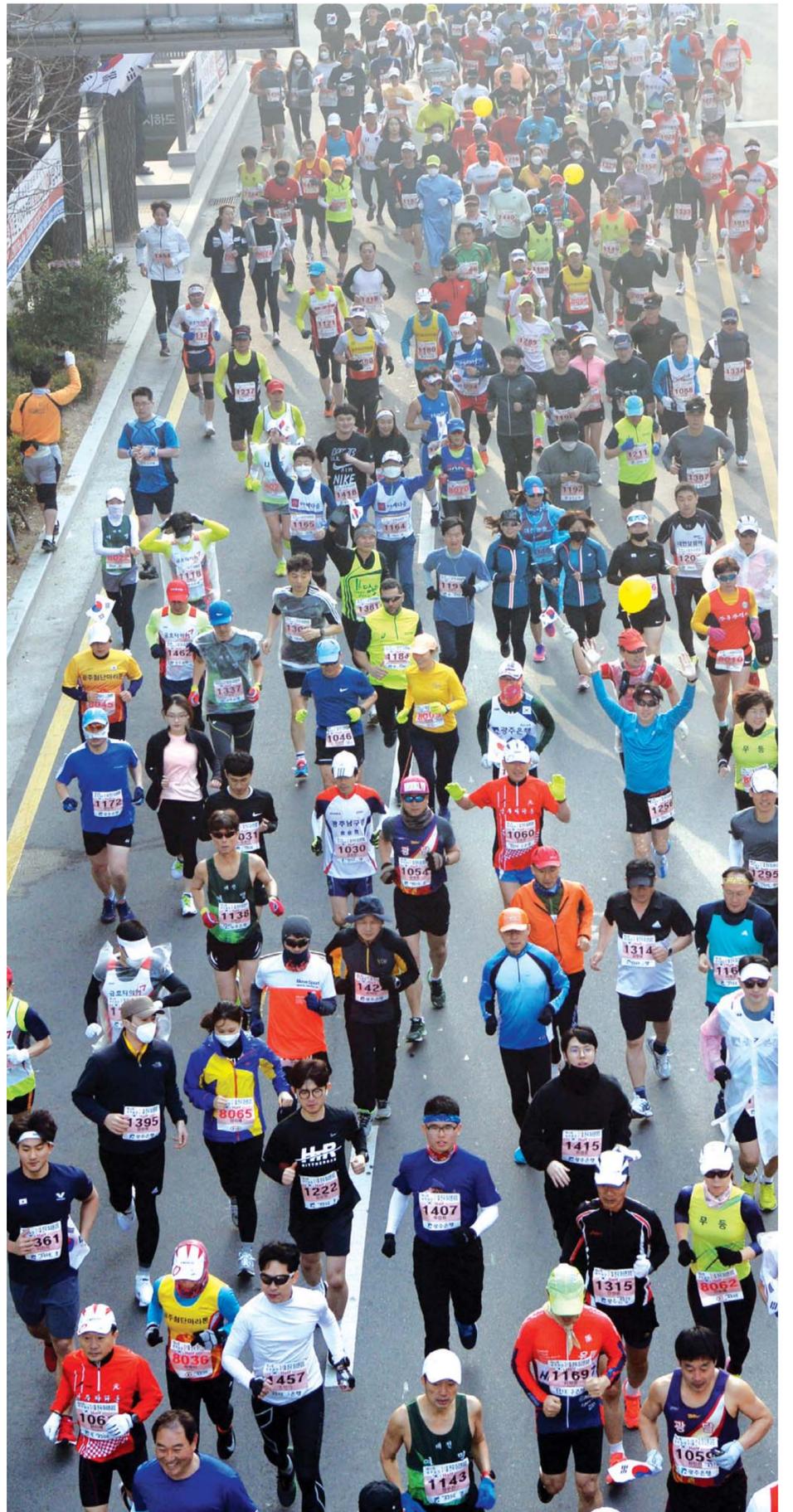
하프코스에 직접 출전한 양대동 광주시 육상연맹 상임부회장은 "미세먼지와 짙은 안개가 대회에 큰 변수였지만 참가자 모두 별다른 어려움 없이 완주할 수 있었다"며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호남의 대표적인 대회답게 운영도 훌륭했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우승이다”

3.1절 100주년 기념 제54회 전국 마라톤 대회 폴코스에 참가한 김정모씨가 1위로 끝내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출발 ~ 제54회 광주일보 3·1절기념 전국마라톤대회 참가자들이 1일 오전 8시30분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5·18민주광장에서 힘차게 출발하고 있다. 3·1운동 100주년이기도 한 이날 2000여 마라토너들은 일제에 맞서 만세운동으로 항거했던 선조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자유와 민주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며 광주의 도시를 질주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54년 명맥 ... 호남 대표 마라톤 대회 자리매김”

심판 총괄 심재용 대한육상연맹 부회장

“역사적인 마라톤 대회가 3·1절 10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로 빛났습니다.”

제54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에서 심판 총괄을 맡은 심재용(광주시청 육상감독·사진) 대한육상연맹 부회장은 깔끔한 운영과 좋은 기록으로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호남의 마라톤 명맥을 이으며 3·1절의 의미까지 고취했다는 점을 높이 샀다.

심 부회장은 “미세 먼지가 아쉬웠지만 온화한 날씨 속에서 참가자들이 좋은 컨디션

으로 최상의 레이스를 펼칠 수 있었다. 좋은 기록들이 나왔다”며 “대회 관계자와 시민들의 협조와 관심 속에 대회가 잘 치러졌다”고 성공적인 대회를 합작한 참가자들과 관계자 그리고 시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심 부회장은 또 전신 광일 마라톤의 ‘도심 주행 코스’를 부활해 호남 마라톤의 정통을 살린 3·1 마라톤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3·1마라톤은 보스턴 마라톤의 김재룡, LA 올림픽의 김원식 등이 달렸던



호남의 대표적인 마라톤 대회다. 올해도 많은 참가자가 대선배들이 뒤엎던 도심을 달리며 역사를 이었다”며 “정통과 명품 코스로 전국 마라토너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대회가 3·1절

100주년과 맞물려 더 의미가 깊었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자연의 소리...





#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